

놀라운 변화



김 조 의 현 (산본연구소 대표) 한화협이사

“..... 이 프로젝트가 갖는 사회적 의미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 더불어 함께 사는 사람 중심으로 요약될 수 있다.”

상기 문구는 지난 11월 초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가 주최한 화장실 관련 심포지엄에서 서울시 간부가 발표한 ‘화장실 시설수준의 향상을 위하여’라는 항목 중의 일부이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내용을 음미해보면 굉장한 변화가 눈에 띄고 있다. 솔직히 말해 우리나라의 관 주도 행정은 대개의 경우가 공급자 중심의 실적위주가 주류를 이루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최소한 화장실 분야에 서만큼은 완연하게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몇 개소의 화장실을 언제까지 준공하겠다는 것보다는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유지관리하기에 편리한 화장실을 만들어야겠다는 의지가 화장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마음속에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서울 강남의 탄천 변에 운전면허 시험장이 있다. 기존의 화장실이 너무 낡아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 의견을 듣고 싶다는 전갈이 왔다.



▲ 새롭게 꾸민 화장실 태완 커팅 장면(탄천운전면허 시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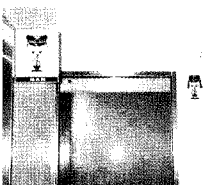
우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기본 구상이 잡혀지고, 시행업자가 선정되어 기존 화장실을 허물고 있는 상황이었다. 기본 구상은 예산상의 어려움도 있고 해서 기존의 위치에 새로운 기물을 놓는 수준이었다.

우리는 우선 그곳을 찾는 방문객의 남녀 구성비를 물었다. 옛날과 달리 남녀 4:6의 비율로 여성이 훨씬 많다는 것이다.

우리는 과감한 변신을 요구했다. “이왕 리모델링을 계획했으니 기존의 넓은 남자화장실 위치를 여성 화장실로 바꾸어 증가하고 있는 여성 이용자에 맞추고 여성용 변기숫자를 늘려야 된다”고

화장실 깨끗이 하기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이 3~4년에 불과하지만, 화장실이 그 외양과 내용이 바뀐 것은 물론,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 실제로 화장실을 현장에서 만들고 유지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그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 모두의 심성까지 완전히 변해 버린 것이다. - 본문중에서 -

말이다. 담당자도 난감해 했고, 시행업자는 배관 등 기술상의 이유를 들어 더더욱 반대를 했다. 토론과 설득을 통하여 비용은 좀 증가하였지만, 그분들은 우리의 의견을 쫓았고 완공된 후 “그때 그렇게 결정하기를 참 잘했다. 정말 고맙다.”는 전화를 여러번 받았던 기억이 난다.



화장실 입구의 남·여 픽토그램

어디 그뿐이라.

우수화장실 현장심사를 위하여 제 주도의 한 공원 화장실을 방문하게 되었다. 화장실 입구에 들어서면 자동센서에 의하여 음악이 나오고, 남성소변기 앞 눈높이에는 유리 창문이 설치되어 있어 소변

을 보면서 멀리 경치를 바라볼 수도 있고 환기에도 도움이 된다. 여성 대변기부스 안에도 창문이 설치되어 실내에 만들어 놓은 인공분수를 감상하면서 용변을 볼 수 있게 되어있는 최상급의 시설이었다.

이용을 하고 나오는 시민 한 분에게 화장실에 대한 느낌을 물어보았다. “…… 다 좋는데 부스에서 보이는 인공분수의 시멘트벽이 약간은 답

답해 보이네요. 답쟁이 낱물이라도 울렸으면 금상첨화겠는데요…….”

다시 여성화장실 부스 안으로 가보았다. 조금 전 그분의 말대로 밖이 보이는 부분의 시멘트벽이 약간은 황량하게 느껴졌다. 답쟁이 덩굴이나 간단한 스케치라도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에 공감아 되었다.

화장실 깨끗이 하기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이 3~4년에 불과하지만, 상기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장실이 그 외양과 내용이 바뀐 것은 물론,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 실제로 화장실을 현장에서 만들고 유지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그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 모두의 심성까지 완전히 변해 버린 것이다.

누가 시켜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하는 스스로의 판단에 기초하여 화장실 업무를 관장하고 관리하여 이용하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변화”에 분명 한국 화장실의 미래는 “확실히 밝음!”이라고 단정 지으며 마침표를 찍어도 틀림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